

예상을 뒤엎은 OPEC 減産 合意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지난 7월 28일부터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속개된 78차 정기총회에서 산유량을 감축키로 전격 합의하였다. 금년들어 벌써 4차례나 OPEC 총회가 실패하였듯이 이번에도 회원국간의 利害對立으로

최근 國際原油價

동향과 전망

李 紀 勳

(産業研究院 動向分折室 研究員)

결렬될 것이라는 대부분의 예상을 뒤엎은 이번 총회의 減産合意는 OPEC 전체 생산한도 및 국별 생산쿼터를 지난 84년 10월에 책정된 수준으로 환원하되, 오는 9월부터 두달간만 잠정적으로 적용하며, 이라크의 생산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합의대로라면 OPEC의 생산한도는 84년 10월에 책정된 생산한도 하루 1,600만 배럴에서 이라크의 쿼터 120만배럴을 제외한 1,480만배럴에다 이라크의 예상 산유량 200만배럴을 합한 1,680만배럴정도가 된다. 8월초 현재 OPEC 산유량이 하루 2,050만배럴 정도이므로 減産幅은 거의 400만배럴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로써 OPEC의 석유정책은 지난 85년 12월 총회에서 채택했던 시장점유율정책을 일단 포기하고 적어도 9, 10월 두달간은 그 이전의 減産政策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OPEC이 非OPEC 산유국들에게 빼앗긴 세계 석유 시장에서의 OPEC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채택했던 점유율정책을 포기하게 된 것은 그동안 OPEC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회복하였으나 油價가 당시 배럴당 30달러 수준에서 10달러전후 수준으로 폭락하였고, OPEC의 石油收入은 금년 상반기에만 무려 200억달러나 감소함으로써 각국이 더 이상 재정압박을 감내하기 어려우며, 油價暴落의 손실은 제정의 石油收入依存도가 낮은 英國, 노르웨이, 소련 등보다 OPEC 자신이 더 크며, 이번 총회마저 실패한다면 油價는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위기감까지 가세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油價는 하락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당초 OPEC이 減産에 합의하기는 어렵고, 합의하더라도 하루 200만배럴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이번 OPEC 총회결과는 세계석유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었으며,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OPEC 총회직후 주요 現·先物油價는 폭등세를 보였다. 정세변화에 민감한 브렌트(Brent) 油의 경우 現物價格이 8월 4일 배럴당 10.20달러에서 5일에는 하루만에 4달러 이상 오른 14달러臺에서 거래되었다. 世界原油價의 지표라 할 수 있는 美國의 WTI 現物價는 8월1일 배럴당 11.55달러에서 5일에는 한때 16.50달러로 상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급등세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WTI 現物價는 8일에 배럴당 14.83달러로, 브렌트油 現物價도 13.30달러로 下落하였다. 이른 油價反騰勢가 수급상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市場參加者들의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OPEC의 산유량은 거의 하루 2,000만배럴 수준이었지만 OPEC産 석유에 대한 석유전체의 수요는 이보다 200만배럴 이상 적어서 과잉생산분은 재고로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금년 3/4분기 중 OPEC 석유에 대한 수요는 2/4분기보다 하루 60~110만배럴이 감소한 1,670~1,720만배럴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예측하고 있다. 이 분석대로라면 OPEC이 減産을 실현하더라도 공급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따라서 심리적 요인에 의해 일시 급등하였던 油價는 수급요인에 의해 反落, 조정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現·先物油價는 OPEC 총회 이전보다는 배럴당 3~4 달러 상승하였고, OPEC이 減産政策으로 일단 되돌아간 이상 油價는 하락국면을 벗어나 회복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世界石油市場의 판도 변화

세계석유시장의 변천을 살펴보면, 우선 소위 세계 7대 석유회사인 7姉妹(seven sisters)가 세계 석유의 생산, 수송, 유통 등 거의 전 단계를 석권하던 지난 60년대 메이저의 시대를 들 수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石油은

싼 값으로 구할 수 있었다.

70년대는 OPEC이라는 공급카르텔의 시대이다. 石油라는 단일상품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힘을 깨달은 몇몇 산유국들이 OPEC이라는 카르텔을 조직, 세계석유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OPEC은 供給獨占市場下(엄밀한 의미에서는 寡占市場임)에서 인위적인 공급량조정을 통해 油價를 상승시켜 利潤極大化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해서 지난 73, 74년과 79, 80년에 두차례의 석유파동이 발생하였고, 油價는(사우디産 輕質油 公示價) 석유파동 이전 73년 1월 배럴당 2.1달러에서 80년 7월에는 28달러로 무려 13배나 상승하였다. 中東産原油의 배럴당 생산비가 대부분 1달러 미만이므로 OPEC이 거둬 들인 超過利潤, 소위 오일 머니(oil money 혹은 oil dollar)는 엄청난 국제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꿔 놓을 정도였다.

OPEC이 세계정치·경제면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지만 전통적인 經濟理論에 끼친 영향도 크다.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은 생산요소로서 자본(Capital : K)과 노동(Labour : L)만을 고려하고 에너지가격 등 기타 요인은 불변(ceteris paribus : other things being equal)이라는 가정에 이론을 전개해 왔는데 더 이상 에너지가격은 不變이 아니었고 오히려 에너지 가격의 변화가 생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經濟理論은 더욱 복잡화되어 에너지經濟學분야가 크게 발전하게 된만큼 OPEC은 經濟理論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물론 OPEC의 존재는 카르텔理論의 精緻化에도 기여하였다. 나아가 지난 60년에 창설된 카르텔이 아직까지 해체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음은 경제학자들의 주장-모든 카르텔은 초과 이윤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참가자들의 갈등과 새로운 進入(New Entry)에 의해 필연적으로 와해된다는-이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듯 하였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서는 점차 이러한 주장이 옳은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두차례 석유파동에 따른 油價暴騰과 공급불안정성의 증대는 ① 석유소비국들의 石油代替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 증대, 에너지절약형 산업으로의 구조조정 등 필사적인 石油依存度 축소노력을 불러 일으켜 세계석유수요의 감소 현상을 낳았고, ② 英國, 노르웨이, 中共 등 非OPEC 산유국들의 석유생산을 크게 증대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OPEC의 공급은 지난 79년 하루 3,147만 배럴에서 85년에는 1,723만배럴로 감소되었고 세계 석유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에서 30%로 줄었다. 반면 공산권을 제외한 非OPEC 産油國들의 공급은 같은 기간 중 1981만 배럴에서 2,499만배럴로 증가 오히려 OPEC의 공급을 능가하게 되었다. 더구나 석유현물시장 (spot market) 과 종이石油 (paper barrel) 라는 先物石油 가 거래되는 先物市場 (futures market) 이 급속도로 발

만 아니라, 산유량을 하루 1,400만 배럴에서 최고 3,000만배럴까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油價의 향방은 OPEC이 여하히 談合하여 산유량을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OPEC의 석유정책으로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산유량통제에 따른 高油價政策이다. 공급독점카르텔로서의 지위를 이용 산유량을 줄임으로써 油價를 높

● OPEC가 오는 10월 6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이후에도 이란측의 주장대로 減産政策을 지지한다면 연말에는 油價가 배럴당 20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OPEC를 주도하고 있는 측은 사우디, 쿠웨이트 등이고, 4/4분기부터 盛需期로 접어들어 油價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 보서는 OPEC가 생산한도를 다시 늘릴 가능성이 더 많다 ●

달하여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石油先物量은 하루 5,600만배럴로 세계 하루 산유량을 능가하는 수준이 되었다.

이로써 사상 최악의 카르텔이라던 OPEC의 몰락이 진행되고 있다. OPEC의 基準油인 사우디産 輕質油 (Saudi arabian Light) 公示價는 83년에 배럴당 34달러에서 29달러로, 85년에 28달러로 인하되었다가 급기야 公示價마저 포기되고 최근에는 10달러 선으로 폭락하였다. OPEC의 생산한도도 82년 하루 1,800만배럴에서 84년 하루 1,600만 배럴로 줄어들었으나 마침내 회원국들이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아 산유량통제능력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60년대에 메이저들이, 70년대에 OPEC이 장악하였던 세계석유시장의 주도권은 80년대 들어서는 다원화되었고, 공급자시장 (seller's market) 에서 수요자시장 (buyer's market) 으로 전환되었다.

OPEC의 談合 이행여부가 관건

이처럼 OPEC의 카르텔기능이 쇠퇴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어떠한 집단보다도 세계석유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OPEC은 아직 세계석유공급의 1/3, 세계석유교역의 2/3를 차지하고 있을 뿐

여 초과이익을 향유하지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OPEC이 채택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앞서 살펴 보았듯이 세계 석유수요의 감소와 非OPEC 産油國들의 공급증가를 초래, OPEC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油價維持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더구나, 회원국들의 가격할인이나 생산쿼터위반 등으로 OPEC의 붕괴를 조장할 요소를 담고 있다.

둘째, 시장점유율정책이다. 이 정책은 산유량을 늘려 油價를 하락시킴으로써, 세계석유수요의 회복을 조장하고 非OPEC 산유국들의 석유생산에 타격을 가해 세계석유시장에서 OPEC의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油價下落으로 재정수입을 거의 석유에 의존하는 OPEC 産油國經濟에 타격이 훨씬 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非OPEC의 기존 유전폐쇄, 향후 유전탐사·개발투자감소, 대체에너지 개발노력저하 등을 초래하여, 세계석유수요의 증대, 나아가 OPEC 석유에 대한 依存度 증대를 불러 일으켜 궁극적으로는 OPEC이 세계 석유시장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은 석유매장량이 풍부하고, 인구가 적은 데다 해외자산의 보유로 재정적 여력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점유율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또 다른 속셈으로는 시장점유율정책으로 油價를 폭락시켜 이란의 戰費調達을 어렵게 함으로써 아랍권의 政情불안요인인 이란·이라크戰爭을 빨리 종식시키자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란, 리비아, 알제리 등은 인구가 많고 매장량에도 한계가 있는 데다 전쟁, 경제개발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단기적 利潤極大化를 추구하고 高油價政策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감안하면 향후 油價의 대략적인 방향을 감지할 수 있다. 油價의 중장기 전망은 OPEC이 어떠한 석유정책을 채택하고 또 어느 정도 談話하여 이를 실현시키느냐에 달려있다. OPEC이 시장점유율 정책을 채택할 경우 단기적으로 油價는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재반등할 것이고, 高油價政策을 채택하면 단기적 高油價維持는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油價下落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구체적인 油價의 등락폭이나 등락시기는 OPEC의 정책강도나 결속력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油價 소폭 회복 예상

78次 OPEC 총회의 減産合意는 OPEC이 談話으로 새로운 寡占價格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시장관측통들 가운데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OPEC의 합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산될 것으로 회의적인 견해를 갖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번에는 OPEC의 減産이 실현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OPEC은 이번 합의가 사상 유례없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OPEC 내부에 새로운 기운이 충만, 종전과는 다른 면모를 보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또한 OPEC은 각 회원국들의 생산통계 등 관련정보를 1주일마다 수집, 회원국들의 협정 준수여부를 감시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였고, 과거의 협정위반이 결국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 쿠웨이트 등이 가격할인을 폐지하거나 9월 인도물량을 감축하겠다고 西方석유구매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사실도 OPEC의 減産意志를 보여주는 것이다.

非OPEC 산유국들도 대체로 OPEC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減産에 동조할 뜻을 밝히고 있다. 멕시코는 수출의

10%인 하루 15만 배럴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며, 말레이시아, 오만, 앙골라, 이집트 등도 減産意思를 밝히고 있다. 루크만(Lukman) OPEC의장은 非OPEC 산유국들의 감산폭이 하루 50~8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범세계적인 공급감축이 실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油價는 회복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의 상승세는 수요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며, OPEC의 減産도 9, 10월의 잠정조치에 불과하여 減産政策의 지속여부가 결정될 10월까지의 배럴당 15~18달러로 현재보다 2~3달러의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오는 10월 6일로 예정된 OPEC 임시총회는 OPEC의 減産政策지속여부가 결정될 것인만큼 향후 油價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란, 리비아, 알제리 등 강경파들은 10월 이후에도 현재의 減産政策을 계속하여 油價를 배럴당 20~28달러로 회복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사우디, 쿠웨이트 등은 장기적으로 油價를 17.8달러 선에서 안정시키는 시장점유율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란측의 주장대로 減産政策이 10월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연말에는 油價가 배럴당 20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OPEC을 주도하고 있는 측은 사우디, 쿠웨이트 등이고, 4/4분기부터 石油盛需期로 접어들며 이때쯤이면 油價도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OPEC이 생산한도를 다시 늘릴 가능성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쿠웨이트는 OPEC이 차기총회에서 생산한도를 하루 1800~1900만 배럴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우디나 U. A. E도 산유량을 늘려야 되지만 현재 하루 2,000만 배럴 이상의 산유량은 정당한 시장점유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10월 총회에서는 산유량을 늘리되 油價回復을 바라는 이란측의 희망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중간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油價는 계절적 수요증가에 힘입어 배럴당 17.8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油價上昇速度 빨라질 듯

長期油價전망은 V 커브형, U 커브형, L 커브형의 세가

지 시나리오로 나뉘볼 수 있다. V커브형은 문자 그대로 급격히 하락한 油價가 다시 급격히 상승한다는 전망이요, U커브형은 비교적 완만히 상승하는 것을, L커브형은 아예 低油價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망기관들의 예측은 처음에는 폭락은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V커브형이 압도적이었다가 최근에는 U커브형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OPEC의 內紛이 장기화됨에 따라 아예 低油價가 지속될 것이라는 L커브형도 심심찮게 대두되고 있다.

OPEC은 減産實現으로 低油價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고 대소비국들도 低油價가 세계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최근의 低油價로 세계석유 소비는 증가추세로 돌아선 반면, 非OPEC 産油國들의 석유생산은 점차 위축될 것이므로 油價의 반등은 시간문제라 보인다.

美國石油協會(American Petroleum Institute)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OPEC의 설비가동률이 80%에 달하면 油價가 반등되었는데, 油價가 배럴당 15달러 수준으로 지속되면 오는 90년에, 10달러 수준이면 빠르면 89년 안에 현재 65% 수준인 OPEC 가동률이 80%로 높아져 유가가 반등할 것이며 늦어도 오는 92년까지는 반드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일찌기 IEA도 현재에는 석유의 공급과잉 상태이며 油價도 하락국면이나 오는 90년대에는 또다른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비국들의 에너지절약 및 石油依存度 축소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IEA는 油價가 80년대 후반에 84년 不變價格으로 배럴당 22달러, 오는 2000년에는 37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저명한 에너지연구기관인 야사연구소는 油價上昇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분석을 내놓았다. 인류의 연료는 유사이래 나무에서 석탄→석유→가스로 즉 고체→액체→기체로 변천해 왔는데, 나무를 사용하다가 석탄으로 옮겨온 지 얼마되지 않아 석탄자원은 아직 수백년은 더 뺄 수 있는데 벌써 수십년이면 고갈될 귀중한 석유를 연료로 소진시킨다는 것은 地球村의 한정된 資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견지대로라면 油價가 상승하여 석탄을 좀 더 많이 사용해야 될 것이다. 이때 석탄의 액체화 내지 기체화(가스화)에 대한 연구의 진전 및 실용화가 추세의 흐름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국제석유정세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예컨대 6년째의 이란·이라크戰爭만 하더라도 항간에는 大攻勢

〈表-1〉自由世界 石油需給¹⁾ 推移 및 展望

(單位: 만배럴/日)

	1984	1985	1986			1987		
	OECD	OECD	OECD	WEFA ²⁾	DRI	OECD	WEFA ²⁾	DRI
消 費								
O E C D	3,440	3,400	3,440	3,002	3,483	3,510	3,090	3,565
O P E C	300	300	300	462	370	300	474	370
非産油開途國	850	860	870	946	777	870	983	792
其 他	20	-20	0	0	0	10	0	0
計	4,610	4,540	4,610	4,410	4,630	4,690	4,547	4,727
供 給								
O E C D	1,670	1,720	1,740	1,693	..	1,740	1,674	..
O P E C	1,850	1,720	1,770	1,739	1,866	1,830	1,837	1,916
對共產圈純輸入	180	160	160	101	..	160	103	..
其 他	900	950	940	877	..	960	933	..
計	4,600	4,550	4,610	4,410	4,386	4,690	4,547	4,455

資料: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1986.

WEFA, World Economic Outlook, July 1986.

DRI, Review of the U. S. Economy, June 1986.

註: 1) NGL 포함. 2) NGL 제외.

임박설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향후 석유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의 변화는 근본적인 市場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기 보다 여타국(주로 사우디)의 생산정책에 의해 결정되며 사회의 복합적, 정치적 요인 혹은 장기적 고려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 에너지市場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만약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 대한 더 한층의 준비가 요구된다』는 美國 에너지省 情報局(EIA)의 견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

〈表-2〉 展望機關別 國際原油價 推移 및 展望

(單位: 달러 / 배럴)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OECD ¹⁾	28.00	26.40	17.50	15.00	-	-	-
WEFA ²⁾	29.09	28.09	15.53	15.85	18.40	21.17	23.20
D R I ³⁾	28.87	27.04	16.03	15.80	17.21	-	-
N R I ⁴⁾	28.10	27.20	19.10	-	-	-	-

資料: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1986.

WEFA, World Economic Outlook, July 1986.

DRI, Review of the U. S. Economy, July 1986.

NRI, Quaterly Economic Review, May 1986.

註: 1) OECD中 6大國의 加重平均原油 輸入價(f. o. b)임.

2) OPEC國別 産油量에 의해 加重平均된 가격(f. o. b)임.

3) 美國 精油業者의 海外原油 取得價格임.

4) NRI 추정 OPEC平均價임.

□ 新刊案内 □

國內外石油資料의 集大成

86年版 石油年報

— 大韓石油協會 企劃部 —